

-(으)ㄴ/는/(으)ㄹ + 명사

관형형 — 명사를 꾸미는 동사·형용사

한국어는 명사를 꾸미는 절 전체를 명사 앞에 둡니다. 예: 내가 읽은 책처럼 쓰며, 시제는 꾸미는 동사 자체에 표시합니다. 이 체계는 이후에 배우는 수십 가지 문법의 바탕이 됩니다.

■ 결합 방법

품사	형태	예
동사, 과거	-(으)ㄴ	읽다 → 읽은 책
동사, 현재	-는	읽다 → 읽는 책
동사, 미래	-(으)ㄹ	읽다 → 읽을 책
형용사, 현재	-(으)ㄴ	좋다 → 좋은 사람
있다 / 없다 무리	-는	재미있는 영화
ㄹ 어간	ㄹ 탈락	만들다 → 만든 / 만드는
이다	-인	학생인 친구
회상	-던	자주 가던 카페

■ 언제 쓰나요

꾸미는 말은 항상 명사 앞에 오며, 시제는 본동사가 아니라 이 관형형에 붙습니다. 어제 읽은 책 (어제 읽은 책), 지금 읽는 책 (지금 읽고 있는 책), 내일 읽을 책 (앞으로 읽을 책).

동사와 형용사는 다르게 활용하며, 대부분의 실수가 여기서 생깁니다. 동사: 과거 -(으)ㄴ, 현재 -는, 미래 -(으)ㄹ. 형용사: 현재 -(으)ㄴ — 좋은 사람, 예쁜 꽃. 그래서 읽은은 동사의 과거이지만 좋은은 형용사의 현재입니다. 형태는 비슷해 보여도 다릅니다.

그 중간에 있는 무리가 하나 있습니다. 있다가 없다가 이루어진 형용사는 -는를 씁니다(-(으)ㄴ이 아님): 재미있는 영화, 맛있는 음식, 재미없는 수업. 또한 ㄹ로 끝나는 어간은 -(으)ㄴ과 -는 앞에서 ㄹ이 탈락합니다. 만들다는 만든, 만드느이 됩니다.

■ 예문

- 1 지금 읽는 책이 재미있어요.
- 2 어제 만난 사람이에요.
- 3 내일 갈 곳을 정했어요.
- 4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.
- 5 예쁜 옷을 샀어요.
- 6 제가 사는 곳은 서울이에요.

■ 비교

영어 관계절과의 차이

어순이 반대입니다. 영어에서는 꾸미는 절이 명사 뒤에 오지만 한국어에서는 명사 앞에 오며, 관계대명사도 쓰지 않습니다.

내가 어제 읽은 그 책 → 어제 읽은 책

동사와 형용사

같은 어미라도 품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. 동사에 붙은 -(으)ㄴ은 과거이고, 형용사에 붙은 -(으)ㄴ은 현재입니다. 형태만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 단어의 품사를 알아야 합니다.

읽은 책 (과거에 읽은 책) / 좋은 책 (좋은 책)

-던

과거에 습관적이었거나 끝나지 않은 일을 회상하는 느낌으로 나타냅니다. 완료된 행동을 그대로 전달하는 -(으)ㄴ과 대비됩니다.

자주 가던 카페 (예전에 자주 가던 카페) / 어제 간 카페 (어제 간 카페)

■ 주의

✗ 정말 재미있는 영화예요.

○ 정말 재미있는 영화예요.

있다가 없다가 끝나는 형용사는 -(으)ㄴ이 아니라 -는을 씁니다. 맛있는, 맛있는, 재미없는 모두 같습니다.

✗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.

○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.

일반 형용사의 현재는 -(으)ㄴ을 씁니다. -는은 동사와 있다 무리에만 씁니다.

✗ 제가 만들은 음식이에요.

○ 제가 만든 음식이에요.

ㄹ로 끝나는 어간은 -(으)ㄴ과 -는 앞에서 ㄹ이 탈락합니다: 만든, 만드느. 살다의 사는 사람과 산 사람을 비교해 보세요.